

# 요한일서 연구

## 1 *John*

시대의소망 *Desire of Ages*

## 요한일서 연구

---

2013년 1월 22일 인쇄  
2013년 1월 24일 발행

지은이 : 이 소 영  
발행인 : 최 상 섭

펴낸곳 : 삼영출판사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2동 103-294  
전 화 : (02) 2249-3641, 2248-7073  
팩 스 : (02) 2249-7337  
등록번호 : 1989, 8, 11 제 5-195호  
기획편집 : 박점자, 표지디자인 : 김효정

보 급 처 : 시대의 소망  
홈페이지 : truthtv. co. kr  
전 화 : 070-8285-7004, 8004, 033-334-6004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물안리) 2075-1  
후원계좌 : (농협) 351-0198-9329-83(예금주: 이영수)  
(국민) 303801-04-202515(예금주: 유소영)  
(외환) 420-18-18022-1(예금주: 유소영)

---

## 머리말

☛ 은혜로 변화된 요한은 ‘구원을 만져 본 자’로서 확신 있게 우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 가운데에 놓여 있다. 대개의 경험이 롬 7:14, 24절의 죄의 짐에 눌려서 죄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24)라고 부르짖고 있다. 필자도 오랜 시간을 이러한 절망의 늪에서 죄의 무게에 압도되어 해매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는 죄의 종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한 가지 비결을 소개하고 있다. 롬 7:24의 경험 곧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지배당하던 ‘죄 아래 팔린 몸’이 어떻게 롬 8:2의 경험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가를 말이다.

그것은 바로 롬 8:1의 경험이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결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 나와, 우리를 해방 시킨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의 대언자(보증인)이시며 죄를 위한 화목제물(담보물건)이신(요일 2:1, 2) 그리스도께서 아버

지 앞에서 애간장이 닳도록 증보하시는 내용은,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를 담보로 하셔서 이 죄인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나의 증보의 혜택을 힘입어 나의 피로 산 이 죄인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나의 증인’ 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꼭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는 입장에서,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을 아시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롬 8:3)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승리하는 모든 비결’ 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성령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을 따르지 않고 ‘양자의 영’ 을 획득함으로 “아바 아버지!” , “아바, 아버지!” 하는 매일 매 순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노래가 터져 나오게 되며, 유희와 시험이 올 때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롬 6:2)하며 과감하게 ‘육신의 정욕’ 과 ‘뭇된 생각’ 과 ‘죄질 생각’ 을 내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갈 4:30).

이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롬 5:12의 보편적인 죄의 역사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매일 같이 죄를 “이기고 또 이기는” 구원의 노래를 은혜로 부를 것이다. 롬 5:17의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으나” 그러나 **그때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 “더욱” (much-more) “더욱” (much-more)에 주의하라!!) “아바, 아버지!” , “내 아버지!” 라는 경험의 노래,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가 비로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바울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에 이어 요한의 구원의 노래 역시 생생하게 살아 있는데, 요한은 한마디로 요 1:29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는 것이다. 여기서 지고 가는, **takes away the sin(나의 죄를 제거하시는)**, 바로 이 구절을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이

제 더 이상 무서워하는 죄의 종이 아닌 것이다. 거듭난 이후라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정욕이나 죄의 정욕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그것들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죄가 허용 될 발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 (요일 3:9; 5:18)들은 우리를 ‘피로사신 그리스도’ (계 5:9)의 은혜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랑에 감동되어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하게 된다. 그렇지만 혹 연약하여 실수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히 4:16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아멘!! 아멘!!

어떻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대언자(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요일 2:1)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도(롬 5:10) 우리를 죽음 너머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는(요일 2:2)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도(롬 5:8)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롬 5:8)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일 4:19) “우리가 아직 연약 할 때에” 도(롬 5:6)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끝나지 않고 계속 계속되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다.

☛ 요한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4:18)고 말씀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 (히 4:15)가 아니시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존심도, 생명도, 하늘의 지위도 모두 버리시고, 죄 짓지 아니하는 일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지 않으셨던가? 언제든지 달려가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자! 그저 주님은 나의 죄만 가져오라고

하신다. 그 지긋지긋한 죄 덩어리가 있으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잘난 의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고, 버리기를 소원하는 그 죄를 주님께 참으로 죄송하지만 갖다드리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역시 이것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엔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눈물과 감사뿐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연약한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나의 죄를 제거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는 ‘그분처럼 먹고’, ‘그분처럼 마시고’, ‘그분의 모든 습관을 따라하고’, ‘그분의 모든 교훈을 내 것으로 삼아서’ 마침내 나 자신보다도 사랑하는 그분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분을 열렬히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붙잡자!

우리를 연약의 피로 보증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드시지 않고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서 새 것으로 우리와 함께 드시겠다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꼭, 꼬옥!! 하늘에 가야한다.(마 26:26~29) 우리가 하늘에 안 가면 베냐민(구속받을 지구의 살아남을 막둥이들)을 생각하며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갈 하나님(야곱은 아버지 하나님의 표상)의 절절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들은 꼬옥! 하늘에 가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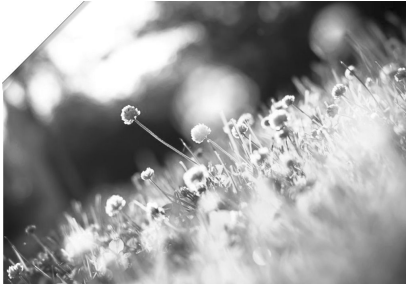
어릴 적 필자가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자주 생각이 난다.

♪♪♪ 하늘에 곧 갈 테야. 예수님 예비하신 집. 그 곳에서 너를 만나서  
즐겁게 놀~테야.

저 하늘에 살 때에 이웃집에 누가 살까? 문 두드리면 네가 나와 반갑게  
만났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필자의 간증 중에서-



목 차  
*Contents*

머리말	3
서론 은혜로 변화되는 경험의 노래	9
1장 “나는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와 함께 있었다”	43
2장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73
3장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113
4장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157
5장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193

